

분만후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증 1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내과, 산부인과<sup>1</sup>

\*양하나 · 이성화 · 김병호 · 손경민 · 최명진 · 유선영<sup>1</sup> · 노의선<sup>1</sup> · 홍경순

**서론 :** 최근까지 분만후 발생한 심부전은 대부분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으로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mid ventricular ballooning으로 나타난 스트레스성 심근증으로 판단되는 분만후 심부전 환자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8세 여자환자로 초산부이며, 임신기간중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전간증 있어 치료받았고, 임신 36주에 조기진통있어 입원하였다. 수술전 검사에서 흉부방사선과 심전도는 정상이었다. 척추마취하에 제왕절개술로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수술후 회복실에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보여 기도삽관후 중환자실 치료시작하였다.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심비대와 폐부종 관찰되었다. 심초음파에서 좌심실구혈율은 10% 이하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좌심실 확장과 심한 승모판 역류를 보였다. 심부전 진단하에 이노제와 디곡신,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로 치료하면서 증상 호전되어 술후 3일째 인공호흡기 이탈하였다. 술후 4일째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좌심실구혈율은 25%로 호전되었고, 심실중간부위의 벽운동이 다른 부위에 비해 저하되어 있었다. 술후 10일째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좌심실구혈율이 45%까지 회복되고, 좌심실 크기도 정상화되었으나, 심실중간부위의 수축력은 여전히 떨어져 있었다. 환자의 심초음파에서 mid ventricular ballooning이 관찰되고, 빠른 회복을 보인것이,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보다는 스트레스성 심근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고찰 :** 분만전후 심근병증과는 달리, 심초음파에서 국소적 벽운동 이상과, 임상경과의 빠른 회복을 보이는 분만후 스트레스성 심근증 1례를 보고하며, 향후 분만후 발생하는 심부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 case of primary cardiac angiosarcoma treated by complete tumor resection with cardiac reconstruction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송봉근 · 조수진 · 최승민 · 이상엽 · 김정혁 · 박용환 · 조성원 · 최진오 · 이상철 · 박승우

Primary cardiac sarcoma is a rare malignant neoplasm, with an incidence of 0.0001 % in collected autopsy series. Angiosarcoma is the most common cardiac sarcoma and makes up 33% of the cases and that is associated with a poor prognosis. Since angiosarcoma is essentially not responsive to current regimens of chemotherapy and irradiation, early complete resection is recommended as the treatment of choice. However, complete resection is often difficult due to the limited amount of myocardium and expansion of the tumor at the time of diagnosis. We reported a case of right atrial angiosarcoma treated by complete tumor resection with cardiac reconstruction with bovine pericardium patch.

